

民火의 개념 및 膀胱氣化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殷哲旼¹*

A study on the concept of min fire(民火) and its relation to qi transformation(氣化) in urinary bladder

Eun Seok-min¹*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 : Min fire(民火) is mentioned as a kind of fire that exists in human body, which rarely appears in traditional medical books. It was mainly mentioned as a fire in urinary bladder, and was referred to have some function in the process of qi transformation(氣化) in urinary bladder. As the concept of min fire was originated from the Taoist internal alchemy, this study will make a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the examples of min fire in medical theory and Taoist internal alchemy, and will find out the conceptual significance of min fire in medical theory.

Method : Among traditional medical books, min fire appears in such books as *Yixuerumen*(醫學入門), *Youyoujicheng*(幼幼集成), *Fengshijinnangmiltu*(馮氏錦囊秘錄), and also in some books of Taoist internal alchemy. Though rather brief and informal, they show us some information about the performance of min fire in human body. So based on the information about min fire that was acquired from those books, this study will apply the concept of min fire to the traditional dispute on the problem of qi transformation in urinary bladder.

Result & Conclusion : The concept of min fire that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qi transformation in urinary bladder, shows well that qi transformation in urinary bladder produces not only urine but also the ascent of shuijing(水精). And it also shows well that min fire acts as a power for the qi transformation in urinary bladder, which would perform well in the cooperation with sovereign fire(君火). This can be presented as a theoretical basis that the power for the qi transformation in urinary bladder is basically prepared in urinary bladder itself.

Key Words : min fire(民火), qi transformation(氣化), urinary bladder

1. 서론

民火는 의서에 매우 드물게 등장하는 용어로서, 본래 道教內丹學의 저작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체 내의 火의 일종이다. 道教內丹學의 저작들 중에는 인체 내의 火를 君火, 臣火, 民火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들 火와 水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인체 내의 생명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의서에 등장하는 民火의 개념은 道教內丹學 저작들로부터 원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드물지만 그 예로는 明代의 『醫學入門』을 비롯하여 清代의 『幼幼集成』, 『馮氏錦囊秘錄』 등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醫學入門』과 『幼幼集成』에서는 인체 내의 火를 君火, 相火, 民火로 구분하면서 이들 火를 각각 心, 腎, 膀胱의 火라고 하였다. 특히 『幼幼集成』에서는 그 내용 중에 仙家の 三昧眞火라는 개념을 언급함으로써 膀胱民火의 개념이 君火, 相火의 개념과 더불어 본래 道教內丹學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內丹學의 臣火와 의서 중의 相火가 서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馮氏錦囊秘錄』에서는 君火, 臣火, 民火가 각각 神, 氣, 精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논의되었는데, 이 역시 道教內丹學의 저작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君火와 相火, 民火의 개념이 道教內丹學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때, 이 세 종류의 火 가운데 君火와 相火의 개념은 의학이론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한 예로 劉河間이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仙經』曰, 心爲君火, 腎爲相火. 是言在腎屬火, 而不屬水也.”라고 하면서 君火와 相火를 각각 心과 腎의 火로 논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의학이론에서 본래 運氣論 상의 개념이던 君火와 相火가 臟腑에 속하는 火로 언급되게 된 중요한 한 계기로서, 道教內丹學의 이론이 의학이론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의학이론 상에

서 君火와 相火의 개념이 지니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해 볼 때, 道教內丹學에서 언급되는 또 하나의 火인 民火 역시 의학이론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드물기는 하지만 그 예들이 위에 언급된 일부분의 저작들에 나타난 것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의학이론에서 民火가 지니는 개념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民火를 膀胱에 속하는 火로 언급한 예들을 기초로 道教內丹學과 의학이론 중의 民火 개념의 연결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는 의학이론 내에서 君火와 相火의 개념이 일정한 논의의 맥락을 지녔듯이 民火 역시 의학이론 내에서 어떤 이론적 맥락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초보적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膀胱의 火로서의 民火가 의학이론에서 가질 수 있는 개념적 의의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의학이론에서 君火와 相火가 논의된 틀 내에 民火가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본 논고에서는 民火가 膀胱의 火로 언급되는 점에 주목하면서 의학이론 중의 膀胱氣化의 문제에 民火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膀胱氣化의 문제는 『素問靈蘭秘典論』에서 膀胱에 대해 언급하면서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라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膀胱에서의 氣化의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결과물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膀胱氣化의 문제와 관련된 근래의 연구로는 賀娟, 章增加 등의 연구를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데, 賀娟은 膀胱氣化의 주된 동력이 되는 것이 膀胱의 經脈인 太陽經 자체의 陽氣라는 주장을 펼쳤고¹⁾, 章增加 역시 膀胱氣化의 동력에 대해 賀娟과 같은 주장을 펴는 한편으로 膀胱氣化와 衛氣와의 상관성에 대해 논하였다²⁾. 또한 송지청 등은 膀胱氣化의 결과물이 소변만이 아니라 水精이 散布되는 면도 아울러 있음을 강조하였다³⁾. 본 논고에

* 교신저자 : 은석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E-mail : eskmin@woosuk.ac.kr Tel : 063-290-1475
접수일(2013년 10월18일), 수정일(2013년 11월14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15일).

1) 賀娟. 試論膀胱‘氣化則能出’.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2年 7月. pp.10-11.
2) 章增加. 論衛氣出于膀胱及臨床意義. 中醫藥通報. 2012年 2月. pp.23-25.

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膀胱氣化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膀胱의 火로서의 民火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고는 먼저 의서들과 道敎內丹學 저작들에 나타난 民火의 개념을 먼저 살펴본 다음, 이어 이를 기초로 膀胱氣化의 문제에 있어 民火의 개념적 의의를 논해 보고자 한다.

2. 民火의 개념

1) 의서들에 나타난 民火

의서에 民火의 개념이 나타난 예로는 『醫學入門』, 『幼幼集成』, 『馮氏錦囊秘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明代의 저작인 『醫學入門』의 예를 보면 李梴은 인체 내의 火에 대해 논하면서 民火를 膀胱의 火로 언급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五行 가운데 오직 火만이 둘로 나뉘니, 心에는 君火가 있어 一身의 主가 되고 腎의 相火는 몸 안에 흘러 다니면서 肝膽包絡三焦 등에 깃들어 있다. 또한 膀胱의 民火 역시 腎에 속하니, 이들 火는 모두 天賦의 것으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五志의 火는 사람에게서 비롯되니, 이런 까닭으로 內傷의 火는 많고 外感의 火는 적다. 아! 火는 妄動해서는 안 되니, 動함은 心으로부터 비롯된다. ‘靜’이라는 한 글자는 心 중의 水가 아니겠는가.”⁴⁾

윗 내용을 보면 李梴은 五行 중에 火만이 둘로 나뉜다고 하였고, 이 때 火는 君火와 相火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膀胱의 民火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또한 腎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면 民火는 기본적으로 相火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民火가 거시적으로는 腎의 相火에 속하는 것이지만 膀胱의 火로서의 그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醫學入門』에서는 民火의 기능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民火의 개념이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예로 『幼幼集成』의 경우는 道敎에서 말하는 三昧眞火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인체 내의 火를 心의 君火와 命門의 相火 및 膀胱의 民火로 나누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蠶繭湯은 三消의 증을 通治한다. 蠶繭殼 가운데 綿絲가 덩어리를 이룬 것을 煎湯하여 때때로 茶처럼 마시는데, 십사일 정도에 이르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 蠶繭殼은 馬와 同氣의 것으로서 모두 午火에 속하니, 사람에게 있어서는 少陰君火가 되어 膀胱의 火를 伏함으로써 陰液을 이끌고 위로 口에 이르게 하여 渴이 절로 그치도록 한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膀胱의 火가 문제를 일으킨다고들 하는데, 膀胱의 火는 收攝해 들이지 못하면 소변을 따라 유실되어 버리며, 그 火가 위로 상승하지 못하면서 津液이 생하지 못하여 口渴이 나타난다. 仙家에서는 三昧眞火를 운용한다고 하는데, 心에 君火가 있고 命門에 相火가 있고 膀胱에 民火가 있으며, 火가 起할 때에는 반드시 膀胱으로부터 시작된 이후 相火와 君火의 순으로 三火가 모두 發하게 된다. 이로써 陰魔를 煉하면서 眞火가 熏蒸하면 甘露가 절로 降하게 되니, 어찌 渴이 있을 수 있겠는가?”⁵⁾

이상과 같이 『幼幼集成』에서는 火의 起始가 반드시 膀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과 아울러 膀胱의 火가 소변을 통해 쉽게 유실된다는 사실 등을 언급한

3) 송지청. 膀胱津液과 氣化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10년 제23권 3호, pp.103-110.

4) 李梴. 醫學入門.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8. p.781. “五行惟火有二, 心爲君火, 一身之主, 腎爲相火, 游行于身, 常寄肝膽胞絡三焦之間. 又膀胱爲民火, 亦屬於腎, 此皆天賦不可無者. 若五志之火, 則由于人, 是以內傷火多, 外感火少, 噫! 火不妄動, 動由于心, 靜之一字, 其心中之水乎!”

5) 陳復正. 幼幼集成.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p.275. “蠶繭湯通治三消之證. 用蠶繭殼, 或取絲綿結塊者, 取來煎湯, 時時當茶飲, 飲至二七, 無不愈者. 蓋此物與馬同氣, 皆屬午火, 在人爲少陰君火, 善伏膀胱之火, 引陰液上潮于口, 而渴自止. 昧者以爲膀胱之火作祟, 不知膀胱之火, 不能收攝, 已隨小便而去, 惟其不能上潮, 所以津液不生而口渴. 不觀仙家運用三昧眞火, 以心爲君火, 命門相火, 膀胱民火, 起火必自膀胱始, 而後相火君火三火齊發, 煉陰魔, 眞火熏蒸, 甘露自降, 何渴之有?”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 民火가 작용함에 있어서의 君火와 民火 사이의 상관성에 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즉 消渴을 다스리는 데 쓰이는 蠶繭湯 중의 蠶繭殼이 少陰君火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膀胱의 火를 잘 伏하게 하여 膀胱 내의 陰液을 위로 이끄는 작용을 발휘함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君火와 民火 사이의 연계적인 작용을 통해 膀胱 내에 藏해진 津液이 위로 배출되게 됨을 말한 것으로서, 君火와 民火 사이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논한 매우 드문 예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학 이론 중의 膀胱氣化의 문제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民火는 이상과 같이 膀胱의 火로 언급되는 것 외에 精에 속하는 火의 의미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 馮兆張은 『馮氏錦囊秘錄』에서 精氣神을 인체 내의 火와 관련지으면서 각각 君火, 臣火, 民火와 연결시켜 논하였다⁶⁾. 이와 같이 馮兆張이 三火를 精氣神과 관련하여 논한 것 역시 道家의 이론을 원용한 것이며, 그의 저작에서 民火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民火의 개념을 언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民火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예도 있는데, 陳士鐸의 『本草新編』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本草新編』에서는 民火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의 실질이 사실은 단지 膀胱의 濕熱일 뿐이며, 이는 결국 道家에서 膀胱의 濕熱을 인체 내의 眞火의 일종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여기에 民火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라 하였다. 즉 『本草新編』에서는 인체 내의 眞火로는 君火와 相火만이 있을 뿐 民火라는 것은 없다고 하였으며, 民火는 단지 道家에서 언급되는 臆說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⁷⁾. 이

와 같이 『本草新編』에서는 의학이론 내에서 民火의 개념이 통용될 수 있음을 부정하였지만, 한편으로는 民火의 개념이 道家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內丹 저작들에 나타난 民火

(1) 膀胱의 火로서의 民火

道敎內丹學의 저작들 중에는 民火라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이를 膀胱의 火로 기술하고 있는 저작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몇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鍾呂傳道集』⁸⁾에서는 인체 내의 水와 火에 대해 논하는 과정에서 “凡身中以火言者, 君火, 臣火, 民火而已. 三火以元陽爲本, 而生眞氣, 眞氣聚而得安, 眞氣弱而成病.”⁹⁾이라 하여 인체 내의 火를 君火, 臣火, 民火로 구분하였고, 元陽이 이 세 종류의 火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內丹 저작에서는 三火가 君火, 臣火, 民火로 구분되어 있는데, 의서에서는 그 중 臣火를 相火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元陽이란 父母의 精血이 만나 인체의 形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腎에 깃들게 되는 것이며, 君火, 臣火, 民火의 三火는 이 元陽을 근본으로 하여 眞氣를 생하게 하는 것이다. 『鍾呂傳道集』에 의하면 인체 내의 臟腑는 그 발생의 과정에서 腎이 먼저 생겨난 이후 腎이 脾를 생하고 이어 肝, 肺, 心, 小腸 등의 순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이 形을 이루는 臟腑 전반이 陰에 해당하며, 陽에

靈樞 未言也? 嗟乎! 此臆說也. 夫人身之火止二, 一君火, 一相火也. 安有民火哉. 此好異而過者也.”

6) 馮兆張. 馮氏錦囊秘錄. 馮兆張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362. “鼻有兩竅, 口有一竅, 其三竅, 此是神氣往來之門. 人身火有內外, 外火有質, 藉穀氣而生, 內火無形, 隨神意而起. 內火有三種, 精爲民火, 氣爲臣火, 神爲君火. 君火者, 心火也, 性火也. 性火發動, 如木出火, 身焚乃止. 『仙訣』曰, 性火不動則神定, 神定則氣定, 氣定則精定. 三火既定, 并會于下丹, 是謂三華聚臟.”

7) 陳士鐸. 本草新編. 山西科學技術出版社. 太原. 2011. p.60. “命門眞陽之火, 道家謂之君火. 膀胱濕熱, 濁陰之水, 滲出竅外爲小便, 道家謂之民火, 民火二字甚新, 何以『內經』,”

8) 『鍾呂傳道集』은 道敎內丹의 주된 문과 중 하나인 鍾呂內丹派의 대표적인 저작이다. 본 논고에 예시된 또 다른 內丹 저작들 가운데 『靈寶筆法』과 『西山群仙會眞記』도 『鍾呂傳道集』과 아울러 鍾呂內丹派에 속하는 저작들로 볼 수 있으며, 『太上九要心印妙經』은 隋代의 道士인 張果의 저작으로 전해진다. 의서에 內丹 저작들이 실명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가운데 張景岳은 『類經』에서 『鍾呂傳道集』과 『契秘圖』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 가운데 『契秘圖』가 또한 張果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음을 생각해 볼 때 張果와 鍾呂內丹派의 저작들은 의학이론과 道敎內丹의 상관성을 논함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施肩吾 傳. 鍾呂傳道集.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北京. 2008. p.55.

해당하는 元陽은 腎에 깃들게 된다고 한 것이다.¹⁰⁾ 한편 『西山群仙會眞記』에서는 “三火者, 膀胱民火, 腎爲臣火, 心爲君火.”¹¹⁾라고 하였으며, 또한 『鍾呂傳道集』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三焦 및 經絡의 발생에 대한 내용이 더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²⁾ 이와 같은 개념들을 통해 內丹 저작에서 논해지고 있는 내용들은 腎에 깃들어 있는 元陽으로부터 眞氣가 생하여 心에 이르고, 心에서 이 眞氣가 眞液으로 化하여 다시 腎으로 돌아오는 상하왕복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氣의 升降의 과정에서 氣의 휴손됨을 막는 것이 內丹의 주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³⁾

한편 民火는 膀胱의 火로서의 개념 외에 精에 배속된 火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의서에서는 淸代의 의가인 馮兆張이 『馮氏錦囊秘錄』에서 “人身火有內外, 外火有質, 藉穀氣而生, 內火無形, 隨神意而起. 內火有三種, 精爲民火, 氣爲臣火, 神爲君火. 君火者, 心火也, 性火也. 性火發動, 如木出火, 身焚乃止. 『仙訣』曰, 性火不動則神定, 神定則氣定, 氣定則精定. 三火既定, 并會于下丹, 是謂三華聚臟.”이라는 내용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馮兆張의 논의 역시 道教內丹學의 저작에 나타난 내

용을 원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隋唐代의 道士인 張果의 『太上九要心印妙經』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¹⁴⁾ 그 내용을 보면 君火를 神이라 하는 한편으로 또한 心火라고 하였으므로 臣火와 民火 역시 다른 內丹 저작들과서와 같이 각각 腎과 膀胱의 火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太上九要心印妙經』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특히 民火의 경우 이와 관련되어 언급되는 膀胱과 精의 상호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民火의 기능

膀胱의 火로서의 民火의 기능에 대해서는 먼저 『鍾呂傳道集』의 ‘論水火’에서 다음과 같이 논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무릇 民火가 상승하면 腎氣를 도와 眞水を 생하게 하며, 腎水가 상승하면 心液과 만나 眞氣를 생한다.”¹⁵⁾

“眞氣가 心에 있으니 心은 液의 근원이 되고, 元陽이 腎에 있으니 腎은 氣의 海가 된다. 膀胱에는 民火가 있으니 民火에 의하지 않으면 그 쓰임이 발생할 수 없으며, 膀胱은 또한 津液의 府이기도 하다.”¹⁶⁾

10) 施肩吾 傳. 鍾呂傳道集.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北京. 2008. p.51. “呂曰, 五行本于陰陽一氣, 所謂一氣者, 何也? 鍾曰, 一氣者, 昔父與母交, 即以精血造化成形. 腎生脾, 脾生肝, 肝生肺, 肺生心, 心生小腸, 小腸生大腸, 大腸生膽, 膽生胃, 胃生膀胱. 是此陰以精血造化成形, 其陽生在起首始生之處, 一點元陽而在二腎.”

11) 施肩吾. 西山群仙會眞記. 中華道藏第十九冊. 華夏出版社. 北京. 2004. p.135.

12) 施肩吾. 西山群仙會眞記. 中華道藏第十九冊. 華夏出版社. 北京. 2004. p.135. “腎生脾, 脾生肝, 肝生肺, 肺生心, 心生小腸, 小腸生大腸. 大腸生膽, 膽生膀胱, 膀胱生三元, 三元生三焦, 三焦生八脈, 八脈生十二經, 十二經生十二絡, 十二絡生一百八十系絡, 一百八十系絡生一百八十纏絡, 一百八十纏絡生三萬六千孫絡, 三萬六千孫絡生三百六十五骨, 三百六十五骨生八萬四千毛竅, 胎完氣足, 靈光入體, 與母分離, 而爲人也.”

13) 『鍾呂傳道集』의 다음 부분에는 이상의 논의가 잘 요약되어 있다. 施肩吾 傳. 鍾呂傳道集.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北京. 2008. p.28. “既生之後, 元陽在腎, 因元陽而生眞氣, 眞氣朝心, 因眞氣而生眞液. 眞液還元, 上下往復, 若無虧損, 自可延年.”

14) 張果. 太上九要心印妙經. 中華道藏十九冊. 華夏出版社. 北京. 2004. p.1. “三陽者, 三火也, 以精爲民火, 以氣爲臣火, 以心爲君火. 君火乃性火也, 惟性火不可發, 亦不可用. 性火若發, 如火生於木, 火發必剋. 不用者, 必不可動也, 蓋是神定則氣定, 氣定則神定. 三火既定, 併會丹田, 聚燒金鼎, 返煉五行, 運於一氣, 綿綿一晝一夜, 一萬三千五百息, 按周天三百八十四爻, 氣血行八百一十丈, 脈行五十度, 此乃周天, 方爲火候. 其火有二等, 分於內外, 外火者有形有象, 可煉五金, 造化五穀, 滋養於人, 此火非能煉丹, 煉丹之火, 其在內火. 內火者有名無形, 藉五穀之氣, 卽生眞火, 眞火既生, 返鍊其精, 精返爲神, 鍊神合道, 道本自然, 不離一氣, 一氣既調, 百皆順也.”

15) 施肩吾 傳. 鍾呂傳道集.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北京. 2008. p.56. “夫民火上升, 助腎氣以生眞水, 腎水上升, 交心液而生眞氣.”

16) 施肩吾 傳. 鍾呂傳道集.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北京. 2008. p.58. “眞氣在心, 心是液之源. 元陽在

“사람의 心과 腎이 서로 8寸 4分の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定位한 것에 比할 수 있다. 氣와 液이 太極을 통해 서로 生하는 것은 陰과 陽이 서로 合하는 것에 比할 수 있다. 하루의 十二時는 1년 중의 열두 달에 比할 수 있다. 心에서는 液이 生하는데, 저절로 生하는 것이 아니라 肺液이 降하면서 心液이 行하게 되는 것이다. …… 腎에서는 氣가 生하는데, 저절로 生하는 것이 아니라 膀胱의 氣가 升하면서 腎氣가 行하게 되는 것이다.”¹⁷⁾

이상의 내용은 먼저 心과 腎 사이의 氣와 液의 升降에 있어서의 民火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膀胱으로부터 民火가 상승하면 그것이 腎氣를 도와 眞水를 生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眞水는 眞氣와 함께 心으로 올라가며, 心에서 眞氣는 眞液으로 化하고 眞水는 眞氣로 化하게 된다. 이와 같이 心과 腎 사이의 氣와 液의 升降에 있어 民火가 없으면 그 升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데, 즉 처음에 腎으로부터의 氣의 상승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膀胱은 또한 津液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心과 腎 사이의 氣와 液의 升降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鍾呂傳道集』에 의하면, 民火의 작용을 통해 腎에서 처음 氣가 상승하게 되면 肝氣가 이 腎氣를 이끌어 心에 이르게 되며, 火에 해당하는 心에서 腎氣와 心의 眞氣가 만나 肺를 熏蒸하면 肺의 液이 하강하면서 心의 液도 生하게 된다. 이어 肺液은 心液을 이끌어 아래로 腎에 이르고, 水에 해당하는 腎에서 두 水가 만난 다음 膀胱으로 흘러들게 된다.¹⁸⁾ 이와

같은 내용은 心과 腎 사이의 氣와 液의 升降에 따라 膀胱에 津液이 모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心과 腎이 상하로 위치한 것은 天과 地가 定位한 것과도 같으며, 氣와 液이 서로 生하는 것은 陰과 陽이 서로 生化하는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히 『靈寶筆法』에서는 하루의 十二時를 1년 중의 열두 달에 비하하면서 心과 腎 사이의 氣와 液의 升降이 일정한 시간적 規律성을 지니고 있음을 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眞訣』에서 이르기를, ‘立春에는 아래로부터 위로 陽이 升하면서 하루도 안 되어 陰 중에 陽이 절반에 이르게 된다. 立冬에는 위로부터 아래로 陰이 降하면서 하루도 안 되어 陽 중에 陰이 절반에 이르게 된다. 天地의 道는 이와 같다. 오직 사람에게 있어서는 艮卦의 氣가 미미할 때 氣를 기르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乾卦의 氣가 흩어질 때 氣를 모으는 이치를 알지 못하며, 온 종일 六欲七情으로 元陽을 耗散하여 眞氣가 쇠약해진다. 眞氣가 소실되면 眞液이 生하지 못하니, 이로 인해 天地만큼 長久할 수 없게 된다.’”¹⁹⁾

이상의 내용은 天과 地 사이의 陰陽의 升降은 때에 맞추어 흐트러지거나 모자람이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時에 따른 氣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艮卦’와 ‘乾卦’를 통해 時의 변화를 말하면서 그에 따른 氣의 변화 및 養生의 방법을 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艮卦는 시

腎, 腎은 氣之海. 膀胱爲 民火, 不止于 民火, 不能爲用, 而 膀胱又爲 津液之府. 若以不達 天機, 罔測 玄理, 奉道之士 難爲 造化, 不免于 疾病死亡者矣.”

17) 施肩吾 傳. 鍾呂傳道集.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北京. 2008. p.59. “人之心腎相去八寸四分, 乃天地定位之比. 氣液太極相生, 乃陰陽交合之比也. 一日十二時, 乃一年十二月之比也. 心生液, 非自生也, 因肺液降而心液行. 液行夫婦, 自上而下, 以還下田, 乃曰婦還夫宮. 腎生氣, 非自生也, 因膀胱氣升而腎氣行.”

18) 施肩吾 傳. 鍾呂傳道集.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北京. 2008. p.59. “肝氣導引腎氣, 自下而上以至于心. 心, 火也, 二氣相交薰蒸于肺, 肺液下降, 自心而來, 皆曰心

生液…… 肺液傳送心液, 自上而下, 以至于腎. 腎, 水也, 二水相交, 浸潤膀胱, 膀胱氣上升, 自腎而起者, 皆曰氣, ……”

19) 鍾離權. 靈寶筆法.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北京. 2008. p.165. “『眞訣』曰, ‘陽升立春, 自下而上, 不日而陰中陽半矣. 陰降立冬, 自上而下, 不日而陽中陰半矣. 天地之道如是. 惟人也, 當艮卦氣微, 不知養氣之端, 乾卦氣散, 不知聚氣之理, 日夕以六欲七情, 耗散元陽, 使眞氣不旺. 走失眞氣, 使眞液不生, 所以不得如天地之長久. …… 是以日出當用艮卦之時, 以養元氣, 勿以利名動其心, 勿以好惡介其意. ……’”

간적인 의미에서 1년 중의 立春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乾卦는 立冬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²⁰). 艮卦의 때에는 腎氣가 아래로 膀胱으로 전해지는데, 아직 液 중에 氣가 미약하여 陽氣가 升하기 어려운 때이다. 그리고 乾卦의 때에는 心液이 아래로 腎으로 돌아가려 하는 시기로서, 陰이 盛하고 陽이 絶하려는 때이다. 이 두 시기는 모두 陽이 陰에 비해 미약한 시기로서, 이 때 陰陽이 不和하면 병이 많게 됨을 말하고 있다.²¹) 따라서 艮卦의 때에 氣가 미약할 때 氣를 기를 수 있어야 하며, 乾卦의 때에 氣가 흩어질 때 氣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六欲七情 등으로 인해 元陽을 耗散시키면 眞氣가 쇠잔해지고 眞液도 生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그 내용 중에 氣를 보존하기 위한 養生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艮卦의 때에는 正좌하여 導引을 행하기를, 팔과 다리를 교대로 굽혔다 펴므로써 四肢에 氣가 고루 생겨나게 하고 안으로 元氣가 상승하는 것을 유지시켜 心에까지 잘 이르도록 한다. 혹은 침을 한두 모금 삼키고 머리카락과 안면을 이삼십 차례 문지르며, 지난밤에 쌓인 탁한 기운들을 呵出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乾卦의 때에는 正좌하여 咽氣와 함께 搖外腎을 행하는데, 咽氣란 心火를 아래로 納하는 것이고, 搖外腎이란 膀胱의 氣를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다²²). 이를 통해 상하의 君火와 民火를 腎氣의 火와 합해 하나로 하여 下丹田을 따뜻하게 한다. 이와 같이 君火와 相火 및 民火가 하나로 모인 것을 聚火라 하며, 이를 통해 氣가 모여 液을 生하게 하거나 液을 煉하여 氣를 生하게 할 수 있다.²³)

이상의 내용은 膀胱의 火로서의 民火가 인체 내의 氣와 液의 升降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일정 부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 과정이 원활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 어떤 養生의 방법이 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 膀胱氣化에 대한 논의

膀胱氣化에 대한 논의는 『素問靈蘭秘典論』에서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²⁴)라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膀胱에서 진행되는 氣化는 津液의 대사를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膀胱에 津液이 藏해지는 과정과 그 후 氣化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것, 그리고 膀胱에 藏해져 있던 津液이 氣化를 통해 어떤 것들로 化하여 出하는지의 문제가 관련 논의의 주된 논점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한 『內經』 이래의 역대 의가들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膀胱으로의 津液의 운행

『素問靈蘭秘典論』에서의 膀胱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膀胱으로 津液이 모이기까지 인체 내에서 津液이 운행하는 전 과정을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는 『素問經脈別論』의 내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즉 “飲入于胃, 游溢精氣, 上輸于脾, 脾氣散精, 上歸于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并行, 合于四時五藏陰陽, 揆度以爲常也.”²⁵)이라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津液은 水穀으로부터 생성되며, 膀胱으로 津液이 내려 보내지는 것은 肺의 ‘通調水道’의 기능에 의한 것이다²⁶). 하부로 내려간 津液이

20) 鍾離權. 靈寶筆法.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北京. 2008. p.163. “『比喩』曰, ‘以心腎比天地, 以氣液比陰陽, 以一日比一年. 日用艮卦比一年, 用立春之節, 乾卦比一年, 用立冬之節……’”

21) 鍾離權. 靈寶筆法.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北京. 2008. p.164. “一年之中, 立春比一日之時, 艮卦也. 腎氣下傳膀胱, 在液中微弱, 乃陽氣難升之時也. 一年之中, 立冬比一日之時, 乾卦也, 心液下入, 將欲還元, 復入腎中, 乃陰盛陽絕之時也. 人之致病者, 惟陰陽不和. 陽微陰多, 故病多.”

22) 外腎이란 의서들에서는 일반적으로 牽丸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膀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3) 鍾離權. 靈寶筆法.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北

京. 2008. p.165. “是以日出當用艮卦之時, 以養元氣, 勿以利名動其心, 勿以好惡介其意. 當披衣靜坐, 以養其氣, 絕念忘情. 微作導引, 手脚遞互伸縮三五下, 使四體之氣齊生, 內保元氣上升, 以朝于心府, 或咽津一兩口, 搓摩頭面三二十次, 呵出終夜壅聚惡濁之氣, 久而色澤異美, 肌膚光潤. 又于日入當用乾卦之時, 以聚元氣, 當入室靜坐, 咽氣搖外腎. 咽氣者, 是納心火于下, 搖外腎者, 是收膀胱之氣于內. 使上下相合腎氣之火, 三火聚而爲一, 以補暖下田. 無液則聚氣生液, 有液則煉液生氣, 名曰聚火, 又曰太一含眞氣也.”

24) 黃帝內經素問.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14.

25) 黃帝內經素問.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37.

26) 王冰은 이 ‘通調水道’의 개념과 관련하여 肺와 함께 腎을

膀胱에 모이기까지는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靈樞營衛生會』에서 “下焦者, 別回腸, 注于膀胱而滲入焉. 故水穀者, 常并居于胃中, 成糟粕, 而俱下于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²⁷⁾이라 하고 또한 『靈樞五癰津液』에서 “陰陽氣道不通, 四海閉塞, 三焦不瀉, 津液不化, 水穀并行腸胃之中, 別于回腸, 留于下焦, 不得滲膀胱, 則下焦脹, 水溢則為水脹, 此津液五別之逆順也.”²⁸⁾라고 한 것은 모두 津液이 回腸 즉 小腸의 일부분으로부터 下焦를 따라 직접 膀胱으로 滲入함을 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難經』에서도 “下焦者, 當膀胱上口, 主分別清濁, 主出而不納, 以傳導也.”²⁹⁾라고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素問水熱穴論』에서는 腎으로부터 水液이 생겨남을 말하고 있는데, 즉 “帝曰, 諸水皆生于腎乎? 岐伯曰, 腎者牝藏也, 地氣上者屬於腎, 而生水液也, 故曰至陰.”³⁰⁾이라 하였다. 이는 『素問經脈別論』에서 水穀을 통해 津液이 생성되는 것을 말한 것과는 달리 腎에 속하는 地氣가 상승하여 津液이 생성됨을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津液이 생성되는 두 경로 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張隱庵은 이에 대해 언급한 대표적인 의가로 생각되며, 그는 腎氣가 상승하여 陽明에서 合化한 후 胃의 津液과 합해지게 된다고 하였다³¹⁾.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膀胱으로 津液이 모인다고 할 때,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膀胱과 함께 胞라는 용어가 쓰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역대 의가들 중에는 대부분 膀胱과 胞를 구조

적인 의미에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王冰은 『素問痺論』에서의 “胞痺者, 少腹膀胱按之內痛, 若沃以湯, 澁于小便, 上為清涕.”³²⁾라 한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胞가 膀胱의 안에 위치한다고 하였다³³⁾. 또한 胞와 膀胱이 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상세한 기술을 남긴 것으로 생각되는 王安道の 논의를 보면, 그는 『醫經溯洄集小便原委論』에서 胞가 膀胱의 안에 있으며 津液이 胞 안에 머무르다가 氣化를 통해 胞 밖으로 나와 쌓여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되게 된다고 하였다³⁴⁾.

이에 반해 膀胱과 胞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의가도 없지 않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인 張景岳은 『靈樞五味論』에서의 “膀胱之胞”³⁵⁾의 개념과 관련하여 여기에서의 胞는 子宮을 의미하는 胞와 구별하기 위해 일부러 膀胱으로서의 胞라는 의미로 ‘膀胱之胞’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 하였으며, 따라서 膀胱으로서의 胞는 곧 脬로서 여기에서의 胞의 발음도 脬(pao)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이지 子宮을 의미하는 胞(bao)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³⁶⁾.

膀胱 및 胞에 관한 이와 같은 논의들은 膀胱氣化와 관련된 膀胱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논함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언급하였다.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學苑出版社. 2004. p.160. “水土合化, 上滋肺氣, 金氣通腎, 故通調水道, 轉注下焦, 膀胱稟化, 乃為溲矣.”

27) 黃帝內經靈樞.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p.41-42.

28) 黃帝內經靈樞.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62.

29)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編. 難經. 법인문화사. 서울. 2010. p.86.

30) 黃帝內經素問.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91.

31)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學苑出版社. 北京. 2002. p.504. “此復言水生于中焦之胃土, 然由下焦之氣上升以合化. 夫胃為陽腑, 腎為牝藏, 腎氣上交于陽明, 戊癸合化, 而後入胃之飲, 從地土之氣, 上輸于肺, 肺氣通調而下輸決瀆, 故曰‘地氣上者, 屬於腎, 而生水液也.’ 夫水在地之下, 地氣上者, 直從泉下之氣而生, 故曰至陰.”

32) 黃帝內經素問.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69.

33)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學苑出版社. 北京. 2004. p.279. “膀胱為津液之府, 胞內居之, 少腹處關元之中, 內藏胞器.”

34) 王履. 醫經溯洄集. 上海浦江教育出版社. 上海. 2012. p.51. “類纂曰, 膀胱者, 胞之室. 且夫胞之居于膀胱也, 有上口而無下口, 津液既盛于胞, 無由自出, 必因乎氣化而後能漸浸潤于胞外, 積于胞下之空處, 遂為溺以出于前陰也.”

35) 黃帝內經靈樞.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91. “……, 膀胱之胞薄而濡, ……”

36)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188. “此節云膀胱之胞者, 其音拋, 以溲脬為言也. 蓋胞音有二, 而字則相同, 恐人難辨, 故在本篇特加膀胱二字, 以明此非子宮, 正欲辨其疑似耳. 奈何後人不解其意, 俱讀為包, 反因經語, 遂認膀胱與胞為二物. 故在類纂則曰膀胱者胞之室, 王安道則曰膀胱為津液之府, 又有胞居膀胱之室之說, 甚屬不經. 夫脬即膀胱, 膀胱即脬也, 焉得復有一物耶?”

2) 膀胱에서의 氣化와 그 결과물

膀胱氣化에 대한 『內經』 이후의 논의를 보건대, 먼저 隋代의 巢元方은 『諸病源候論·五臟六腑諸候』에서 “五穀五味之津液悉歸于膀胱, 氣化分入血脈, 以成骨髓也, 而津液之餘者, 入胞則爲小便.”³⁷⁾이라 하고, 또한 「虛勞小便難候」에서 “膀胱, 津液之府, 腎主水, 二經共爲表裏, 水行于小腸, 入于胞而爲溲便”³⁸⁾이라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津液이 운행하는 경로를 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셈인데, 즉 하나는 津液이 膀胱으로 모인 후 여기에서 氣化를 통해 骨髓 등이 생성되어 血脈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津液이 氣化를 거친 후 그 나머지 부분이 胞로 들어가 소변이 된다는 것이다. 『諸病源候論』의 이와 같은 논의는 膀胱氣化의 결과물이 尿液만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한 경우들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唐代의 王冰은 『次注黃帝內經素問』에서 “氣化則能出焉”에 대해 주해하기를 “位當孤府, 故謂都官. 居下內空, 故藏津液. 若得氣海之氣施化, 則溲便注泄, 氣海之氣不及, 則閉隱不通, 故曰‘氣化則能出’矣.”³⁹⁾라고 하여, 膀胱에서의 氣化가 氣海之氣에 의한 것이며 그 결과물은 溲便이라 하였다. 王冰은 『素問脈要精微論』에 대한 주석에서 “膻中則氣海也”⁴⁰⁾라 하고 또한 “小腹, 胞氣海在膀胱”⁴¹⁾이라 하였는데, 氣海와 관련하여 膻中과 膀胱이 함께 언급된다는 점에서 그가 말한 氣海는 이른바 下氣海와 膻中을 포괄하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후대 의가들의 경우 張景岳은 氣化의 근원을 下氣海라 하였고⁴²⁾, 馬

蒔와 같은 경우는 氣海를 上焦의 膻中穴이라 하였으며⁴³⁾, 沈金鰲는 『雜病源流犀燭』에서 膀胱에서의 氣化의 동력을 肺라 하였는데⁴⁴⁾, 王冰의 관점은 이들 의가들의 관점이 합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王冰은 膀胱에서의 氣化가 氣海之氣에 의한 것이며, 그 결과물을 尿液으로 본 것이다.

이후 氣化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된 시기는 明代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明代에 들어서는 三焦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膀胱에서의 氣化와 관련하여 三焦의 기능이 많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孫一奎는 『赤水玄珠閉瘕遺溺不禁辨』에서 “膀胱藏水, 三焦出水”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膀胱에서의 氣化를 통해 소변이 배출되는 것을 三焦의 기능을 중심으로 논하였다⁴⁵⁾. 趙獻可는 膀胱과 관련하여 三焦를 언급한 내용이 약간 특이한데, 즉 胃에서 津液이 상승하여 정미로운 부분은 血脈으로 들어가 骨髓를 이루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래로 내려간 후 三焦의 氣化를 통해 小腸과 膀胱을 거쳐 溲便으로 배출된다고 하였다⁴⁶⁾. 이는 膀胱에서의 氣化의 동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小腸과 膀胱에서의 津液의 운행을 三焦와 관련지음으로써 三焦가 膀胱에서의 氣化의 동력임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清代의 林佩琴도 『類證治裁』에서 三焦의 氣化를 통해 膀胱에서 出水가 이루어진다고 하였고⁴⁷⁾,

37)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492.

38)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126.

39)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學苑出版社. 北京. 2004. p.68.

40)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學苑出版社. 北京. 2004. p.124.

41)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學苑出版社. 北京. 2004. p.124.

42)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36. “然氣化之原, 居丹田之間, 是名下氣海, 天一元氣, 化生于此. 元氣足則運化有常, 水道自利, 所以氣爲水母. 知氣化能出之旨, 則治水之道, 思過半矣.”

4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學苑出版社. 北京. 2003. p.102. “然是三焦膀胱者, 必得氣海之氣施化, 則溲便注泄. 氣海之氣不及, 則閉隱不通, 故曰氣化則能出矣. 氣海者, 上焦之膻中穴, 乃宗氣所會, 而自上而下者也.”

44) 沈金鰲. 雜病源流犀燭.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138. “膀胱藏水, 氣化則出, 而主氣化者, 肺也.”

45) 孫一奎. 赤水玄珠. 孫一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351. “經云, 三焦者, 決瀆之府, 水液出焉.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由是言之, 膀胱藏水, 三焦出水, 治小便不利, 故刺灸法但取三焦穴, 不取膀胱穴也.”

46) 趙獻可. 醫貫.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p.828. “廣腸左側爲膀胱, 乃津液之府. 五味入胃, 其津液上升, 精者化爲血脈, 以成骨髓, 津液之餘, 流入下部, 得三焦之氣施化, 小腸滲出, 膀胱滲入, 而溲便注泄矣.”

47) 林佩琴. 類證治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5. p.110. “經云,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 是知膀胱主藏溺, 必待三焦氣化, 乃能

張琦도 『素問釋義』에서 같은 주장을 하였다⁴⁸⁾.

한편 唐宗海는 膀胱에서의 氣化는 곧 膀胱의 氣가 津液을 이끌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며, 이로부터 尿液이 아닌 汗이 생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⁹⁾. 그리고 그는 膀胱이 太陽의 經氣를 품고 있는 것으로서, 膀胱의 氣는 곧 水 중의 陽이 되며, 그 氣가 상행하여 밖으로 향하면 衛氣가 된다고 하였다⁵⁰⁾. 이는 곧 膀胱氣化의 과정에 있어 그 동력은 膀胱 자체의 太陽의 經氣가 되고, 氣化를 통해 膀胱의 氣는 상행하여 衛氣가 되고 膀胱의 氣가 이끌고 올라간 津液은 汗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水 중의 陽에 해당하는 膀胱의 氣가 상행하여 衛氣가 된다고 하는 한편으로, 唐宗海는 또한 膀胱 내의 水가 衛氣로 化한다고 하는 이른바 水氣互化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그 氣化의 동력으로 心火를 말하였다. 즉 호흡을 통해 흡입한 天의 陽氣가 肺管을 타고 心火를 이끌어 아래로 腎과 膀胱의 위치로 내려가는데, 이 心火는 腎과 膀胱의 水를 蒸하여 氣로 化하게 하고 이 氣가 太陽의 經脈을 따라 산포되면서 衛氣가 된다고 한 것이다.⁵¹⁾ 결국 膀胱에서의 氣化와 관련된 唐宗海의 관점은 그 氣化의 동력으로 膀胱 자체의 太陽의 經氣 외에도 心火를 더 언급한 셈이 되며, 氣化의 결과로 汗과 衛氣 등이 생한다고 한 것이다.

唐宗海와 같이 膀胱氣化의 결과물로 汗을 언급한

出水也.”

- 48) 張琦. 素問釋義.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98. p.30. “氣化, 謂三焦也. 三焦之脈, 隨足太陽下行, 絡膀胱約下焦, 實則閉塞, 虛則遺溺. 肺主通調水道, 而小便之泄, 實在三焦, 三焦爲相火, 火盛則熱澀, 火虛則遺溺.”
- 49) 唐宗海. 血證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5. p.14. “經謂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此指汗出, 非指小便.”
- 50) 唐宗海. 血證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5. p.14. “經所謂氣化則能出者, 謂膀胱之氣載津液上行外達, 出而爲汗, 則有雲行雨之象. 故膀胱稱爲太陽, 謂水中之陽, 達于外以爲衛氣, 乃陽之最大者, 外感則傷其陽, 發熱惡寒.”
- 51) 唐宗海. 血證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5. p.3. “蓋人身之氣, 生于膻下丹田氣海之中, 膻下者, 腎與膀胱, 水所歸宿之地也. 此水不自化爲氣, 又賴鼻間吸入天陽, 從肺管引心火, 下入于膻之下, 蒸其水, 使化爲氣. 如易之坎卦, 一陽生于水中, 而爲生氣之根, 氣既生則隨太陽經脈爲布護于外, 是爲衛氣.”

예로는 周學海를 들 수 있으며⁵²⁾, 陳修園은 汗과 尿液을 모두 언급하였다⁵³⁾.

4. 民火와 膀胱氣化의 상관성

의서들에서 언급된 民火는 道敎內丹學의 저작들로부터 원용된 것으로서, 의학이론 내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고는 볼 수 없다. 반면에 內丹이론에서의 君火와 相火의 개념은 『內經』에서의 ‘君火以明, 相火以位’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元氣와 相火, 命門의 관계 등의 면에서 의학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의학이론의 연구에 있어 이와 같이 道家의 이론체계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는 金元代 이후라고 할 수 있다.

劉河間은 『素問病機氣宜保命集病機論第七』에서 이른바 『仙經』의 내용을 빌어 君火와 相火를 각각 心과 腎의 火라 하였는데, 이로부터 君火와 相火가 본격적으로 臟腑의 火로서의 개념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劉河間은 腎을 水에 속하는 것으로만 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左腎은 水에 속하지만 右腎은 곧 命門으로서 相火가 자리한 곳이라 한 것이다.⁵⁴⁾ 이와 같은 예는 『素問玄機原病式』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⁵⁵⁾.

- 52) 周學海. 讀醫隨筆. 周學海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255. “津液爲汗之源, 膀胱氣化則能出汗, 故仲景發汗取之太陽”
- 53) 陳修園. 醫學實在易. 陳修園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8. p.546. “膀胱屬水, 爲腎之腑. 『經』云,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言其能得氣化而津液外出, 滋潤于皮毛也. 若水道之專司, 則在三焦之腑, 故『經』云,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 言其熱氣布瀆, 使水道下出而爲溺也. 『內經』兩‘出’字, 一爲外出, 一爲下出, 千古罕明其旨, 茲特辨之. 又膀胱者, 膀胱者光也, 言血氣之元氣足, 則津液旁達不窮, 而肌膚皮毛皆因以光澤也.”
- 54) 劉河間.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120. “故『仙經』曰, 心爲君火, 臣爲相火. 是言在腎屬水, 而不屬水也. 『經』所謂, ‘膻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 故膻中者, 在乳之間, 下合在于腎, 是火居水位, 得升則喜樂出焉. 雖君相二火之氣, 論其五行造化之理, 同爲熱也. 故左腎屬水,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右腎屬火, 游行三焦, 興衰之道由于此. 故七節之旁, 中有小心, 是言命門相火也.”
- 55)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29. “然右腎命門小心, 爲手厥陰包絡之藏, 故與手少陽三焦合爲表裏, 神脈同出, 見手右尺也. 二經俱是相火, 相行君

또한 張景岳의 경우는 『類經附翼』에서 命門에 대해 논하면서 道家의 논의들을 원용하여 설명하였다. 즉 그는 命門에 대한 의가들의 논의의 주된 근거가 된 『難經』의 命門說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 道家의 이론을 원용하였는데, 이는 道家의 이론이 의학이론 중의 논의와 상통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서에서의 관련 논의의 소략함을 道家의 논의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논의를 보면 그는 『黃庭經』에서 命門의 용례를 찾아내어 그 이론적 의미를 밝히는 한편⁵⁶⁾, 의학이론에서의 命門 개념의 의의를 道家에서 말하는 丹田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기도 하였다⁵⁷⁾. 뿐만 아니라 張景岳은 陰陽의 기본원리를 논하는 과정에서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을 비판하면서 道家의 이론을 원용하기도 하였는데, 즉 『類經』에서 內丹 저작인 『鍾呂傳道集』의 내용을 통해 『素問上古天真論』에서의 ‘陰氣自半’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⁵⁸⁾.

이상과 같은 예들은 醫家들이 命門, 元氣, 君火, 相火 등의 개념을 연구함에 있어 道家의 이론체계를 수용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주된 예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道家의 이론들을 의

학이론 내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民火의 개념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무엇보다도 道家에서 三火로 불리는 君火, 相火, 民火 가운데 君火와 相火는 『內經』에 그 용어들이 쓰이고 있기에 양자간에 서로 개념적 연결이 이루어지기 쉬운 조건에 있지만 民火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醫學入門』의 예에서와 같이 三火의 개념에 있어 民火를 기본적으로 相火에 부속되는 火로 보면서 民火의 개념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거시적으로 腎에 속하는 相火의 틀을 통해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논했던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民火의 개념은 의학이론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民火의 개념을 『內經』 이후의 의학이론들과 더욱 긴밀히 연결시켜 본다면 인체 내의 火의 기능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民火의 개념이 언급된 의서들 가운데 陳復正(1690-1751)의 『幼幼集成』은 단순히 民火라는 개념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제적 기능에 대해 언급한 귀중한 예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예가 가능하기까지는 그가 道家의 명산 중 하나인 羅浮山에서 활동했던 道士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陳復正은 道家와 의학에 모두 밝은 인물이었기에 道家의 이론을 의학이론에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비록 단 한 예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民火의 개념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民火와 관련하여 『幼幼集成』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道家에서 民火가 君火 및 相火에 대해 가지는 기능적 관계를 논한 것으로서, 火가 起始함에 있어 반드시 膀胱의 民火로부터 시작하여 相火, 君火의 순으로 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君火에 의해 膀胱의 火가 이끌어짐으로써 이 火가 膀胱 내의 陰液을 이끌어 상승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民火 개념의 용례를 의학이론 중의 膀胱氣化의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이를 인체 내의 津液이 膀胱으로 모이기까지의 과정과 그 후 膀胱에서 氣化

命, 故曰命門爾。故『仙經』曰, ‘心爲君火, 腎爲相火’, 是言右腎屬火, 而不屬水也。”

56) 張景岳. 類經附翼. 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96. “予因歷考諸書, 見黃庭經曰, 上有黃庭下關元, 後有幽闕前命門。又曰, 閉塞命門似玉都, 又曰, 丹田之中精氣微, 玉房之中神門戶。梁丘子注曰, 男以藏精, 女以約血, 故曰門戶。又曰, 關元之中, 男子藏精之所。元陽子曰, 命門者, 下丹田精氣出飛之處也。是皆醫家所未言, 而實足爲斯發明者。”

57) 張景岳. 類經附翼. 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97. “且夫命門者, 子宮之門戶也。子宮者, 腎臟藏精之府也。腎臟者, 主先天真一之氣, 北門鎖鑰之司也。而其所以爲鎖鑰者, 正賴命門之閉固, 蓄坎中之真陽, 以爲一身生化之原也。此命門與腎, 本同一氣。『道經』謂此當上下左右之中, 其位象極, 名爲丹田。”

58)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1. “又鍾呂集曰, 真氣爲陽, 真水爲陰。陽藏水中, 陰藏氣中, 氣主于升, 氣中有真水。水主于降, 水中有真氣, 真水乃真陰也。真氣乃真陽也。凡此之說, 皆深得陰陽之精義。試以人之陽事驗之, 夫施而泄者, 陰之精也, 堅而熱者, 陽之氣也, 精去而陽痿, 則陰之爲陽, 尤易見也。此即陰氣自半之謂。”

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民火는 체내에서 津液이 생성되는 과정의 일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幼幼集成』에서는 民火가 먼저 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相火와 君火가 차례로 발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火가 작용하는 방식은 津液의 생성 및 순환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鍾呂傳道集』에 의하면 “夫 民火上升，助腎氣以生眞水，腎水上升，交心液而生眞氣”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民火는 膀胱으로부터 상승하여 腎氣를 도와 眞水를 생하게 된다. 즉 腎氣로부터 眞水가 생함에 있어 膀胱의 民火가 상승하여 腎氣를 돕는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腎으로부터 眞水라고 하는 津液이 생성됨에 있어 民火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素問水熱穴論』에서 말하는 것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즉 『素問水熱穴論』에서 “帝曰，諸水皆生于腎乎？岐伯曰，腎者牝藏也，地氣上者屬于腎，而生水液也，故曰至陰。”이라 하여 腎으로부터 地氣가 상승하여 水液을 생산한다고 한 것은 곧 『鍾呂傳道集』에서 民火가 상승하여 腎氣를 도와 眞水를 생성한다고 한 점과 상통한다고 생각된다. 결국 『鍾呂傳道集』에서 언급한 民火의 역할은 『素問水熱穴論』에서 腎으로부터 水液이 생성되는 과정을 언급한 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素問水熱穴論』의 이 내용은 『素問經脈別論』에서 水穀을 통해 생성된 津液이 순환하는 것을 말한 것과 달리 腎氣로부터 津液이 생성되는 것을 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張隱庵의 경우는 『素問水熱穴論』에 대한 주석에서 腎氣로부터 생성된 津液이 水穀으로부터 생성된 津液과 脾胃에서 합해진다고 함으로써 『素問水熱穴論』과 『素問經脈別論』의 내용을 연결하여 생각하기도 하였다.

체내에서 생성된 津液은 산포된 후 下輸되어 膀胱으로 모이는데, 이 내용은 『素問經脈別論』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津液의 府로서의 膀胱에서 氣化작용이 일어남을 말하였다.

그런데 『幼幼集成』에서 이르기를 君火가 民火를 伏하여 膀胱의 陰液을 이끌고 상승하도록 한다는 것은 膀胱에서의 氣化작용의 동력 및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君火가 民火에 작용한다는 것은 君火와 民火가 함께 膀胱氣化의 동력으로서 작용함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膀胱으로부터 陰液이 상승한다고 한 것은 膀胱氣化의 결과물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氣化작용의 결과물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內經』 이래의 역대 의가들의 논의를 먼저 생각해 보건대, 膀胱을 통해 尿液이 배출되므로 역대 의가들은 대부분 膀胱에서의 氣化작용의 결과물 역시 尿液을 중심으로 생각하였다. 그런 가운데 일부의 의가들은 膀胱에서의 氣化를 통해 津液 중의 精氣가 산포된다고 보았는데, 이와 같은 관점을 분명히 제시한 가장 이른 시기의 저작은 『諸病源候論』이라 할 수 있다. 다만 『素問經脈別論』에서 “飲入于胃，游溢精氣，上輸于脾，脾氣散精，上歸于肺，通調水道，下輸膀胱，水精四布，五經并行，合于四時五藏陰陽，揆度以爲常也.”라고 한 내용이 膀胱氣化를 통한 ‘水精四布’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이는 “下輸膀胱，水精四布”의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즉 “下輸膀胱，水精四布”을 그대로 순차적인 의미로 본다면 곧 津液이 膀胱으로 모인 다음 氣化에 의해 水精이 산포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下輸膀胱’에서 끊으면 ‘水精四布’ 이후의 부분은 ‘脾氣散精’의 결과에 가까운 것이다. 예를 들어 成無己는 脾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今胃強脾弱，約束津液，不得四布，但輸膀胱”⁵⁹⁾이라 하였는데, 이는 곧 水精四布가 脾에 의해 이루어짐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素問經脈別論』의 내용은 膀胱氣化의 결과물이 尿液 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는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며, 오히려 『

59) 成無己. 傷寒明理論. 傷寒金匱溫病名者集成. 華夏出版社. 1997. p.131. “約者，結約之約，又約束之約也. 內經曰，飲入于胃，游溢精氣，上輸于脾，脾氣散精，上歸于肺，通調水道，下輸膀胱，水精四布，五經并行，是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 今胃強脾弱，約束津液，不得四布，但輸膀胱.”

『諸病源候論』에서 그 분명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膀胱氣化에 있어서의 『內經』의 모호한 점을 『諸病源候論』이 보충해 주는 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膀胱氣化에 의해 精氣가 산포된다는 관점을 보인 『鍼灸大成』, 『壽世保元』, 『血證論』 등의 몇 안 되는 의서들 가운데 『壽世保元』에 『諸病源候論』의 내용이 그대로 계승되어 있는 것도 『諸病源候論』에서 말한 膀胱氣化의 요점에 주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⁶⁰⁾. 『幼幼集成』의 경우도 역시 膀胱氣化의 결과물에 대해 기본적으로 『諸病源候論』의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에 더해 膀胱氣化의 동력에 대한 일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幼幼集成』에서의 膀胱氣化에 대한 내용은 膀胱氣化의 결과물을 陰液의 산포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膀胱氣化의 동력으로 氣海, 三焦 등을 언급한 역대 의가들과 달리 君火와 民火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膀胱氣化와 관련하여 君火와 民火를 언급한 것은 일정 부분 唐宗海의 논의와 유사한 면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唐宗海는 膀胱氣化의 동력으로 膀胱 자체의 太陽의 經氣 외에도 心火를 언급하였으며, 氣化작용의 결과로 汗과 衛氣 등이 생한다고 하였다. 唐宗海는 心火가 膀胱으로 들어가 津液을 蒸한다고 하였지만, 『幼幼集成』에서 陳復正은 君火와 民火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논한 셈이다.

陳復正은 君火와 民火가 함께 작용하는 기전에 대해 君火가 民火를 伏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부분은 그가 또한 民火와 관련하여 “味者以爲膀胱之火作祟, 不知膀胱之火, 不能收攝, 已隨小便而去, 惟其不能上潮, 所以津液不生而口作渴.”이라 한 부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膀胱의 火 즉 民火는 收攝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변을 따라 유실되어버리는 것이다. 民火가 소변을 따라 유실됨은 결국 元氣가

소실되는 것인 셈이다. 하지만 君火가 民火를 伏하게 되면 民火가 소변을 따라 유실되지 않고 膀胱 내의 陰液을 이끌고 상승하게 된다. 그렇다면 民火가 收攝되는 것은 君火가 民火를 伏함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셈인데, 이에 대해서는 또한 『靈寶筆法』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靈寶筆法』에서는 乾卦의 때에 ‘咽氣搖外腎’을 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咽氣란 心火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고 搖外腎이란 膀胱의 氣를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咽氣搖外腎’의 과정을 통해 君火와 民火가 腎氣의 火와 만나 하나가 되어 下丹田을 補하고 暖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膀胱의 火를 收攝하는 것이 어떤 과정에 의해 진행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陳復正이 膀胱氣化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君火와 民火만을 언급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民火의 收攝을 말한 것은 사실상 『靈寶筆法』에서 논한 바와 같이 君火와 相火, 民火가 함께 작용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이 세 火가 모두 膀胱氣化의 동력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民火는 道敎內丹學의 저작들에서 君火, 相火와 함께 인체 내의 火의 하나로 언급된 것으로서, 각각 心, 腎, 膀胱과 같은 臟腑에 속하는 火로 언급되거나 精氣腎과 관련하여 언급되었다. 이와 같은 民火의 개념은 君火 및 相火의 경우와는 달리 의학이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의서들 가운데 『醫學入門』을 비롯하여 『幼幼集成』, 『馮氏錦囊秘錄』 등의 극히 일부의 저작에서 民火가 언급되어 있는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극히 일부의 예외는 하지만 이와 같은 저작들에 나타난 民火의 개념과 그 이론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은 의학이론 중의 火의 개념을 이해하는 면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民火가 膀胱의 火로 언급되어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의학이론 내에서 民火 개념의 이론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특히 膀

60) 龔廷賢. 壽世保元. 人民衛生出版社. 1992. p.8. “膀胱象水, 旺于冬, 足太陽其經也, 腎之腑也. 五穀五味之津液, 悉歸于膀胱, 氣化分入血脉, 以成骨髓也, 而津液之餘者, 入胞則爲小便.”

胱의 火로서의 民火의 실제적 기능이 나타나 있는 『幼幼集成』에서의 예를 바탕으로 民火 개념을 의학이론 중의 膀胱氣化의 문제와 관련지어 논하게 되었다.

의학이론에서 기존에 膀胱氣化와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膀胱氣化의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 氣化의 결과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역대 의가들은 氣海, 三焦 등이 氣化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물을 주로 尿液으로 보았다. 그러나 『諸病源候論』을 비롯한 일부의 저작들에서는 膀胱氣化의 결과물에 대해 이를 津液 중의 精氣가 산포되는 것을 중심으로 보았으며, 특히 唐宗海와 같은 경우는 이를 특별히 강조하는 한편으로 그 동력으로 膀胱이 속한 太陽經 자체 및 心火를 氣化의 동력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幼幼集成』에서는 膀胱으로부터 陰液이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君火, 相火 및 民火의 개념이 언급되어 있다. 그 내용은 道教內丹學의 이론들을 원용한 것이며, 이를 통해 津液의 순환 및 膀胱氣化에 있어 三火가 미치는 영향을 논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체 내의 津液의 생성 및 순환에 있어 三火의 개념은 水穀으로부터 津液이 생성되는 것을 논한 『素問經脈別論』의 예와 달리 腎氣로부터 津液이 생성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膀胱에 津液이 모인 후의 氣化 작용도 君火와 民火가 함께 작용하여 陰液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히 膀胱氣化의 동력을 논하는 면에 있어 唐宗海가 膀胱氣化의 동력이 膀胱 자체 즉 膀胱이 속한 太陽經에 있음을 논한 것과 달리, 膀胱에 속하는 火로서의 民火를 膀胱氣化와 관련하여 언급했다는 점에서 膀胱氣化의 동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논문>

1. 賀娟. 試論膀胱‘氣化則能出’.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2年 7月. pp.10-11.

2. 章增加. 論衛氣出于膀胱及臨床意義. 中醫藥通報. 2012年 2月. pp.23-25.
3. 송지청. 膀胱津液과 氣化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년 제23권 3호. pp.103-110.

<단행본>

1. 黃帝內經素問.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14, 37, 69, 91.
2. 黃帝內經靈樞.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41, 42, 62, 91.
3.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編. 難經. 법인문화사. 서울. 2010. p.86.
4. 李梴. 醫學入門.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8. p.781.
5. 陳復正. 幼幼集成.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p.275.
6. 馮兆張. 馮氏錦囊秘錄. 馮兆張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362.
7. 陳士鐸. 本草新編. 山西科學技術出版社. 太原. 2011. p.60.
8. 施肩吾 傳. 鍾呂傳道集.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北京. 2008. p.28, 51, 56, 58, 59.
9. 施肩吾. 西山群仙會真記. 中華道藏第十九冊. 華夏出版社. 北京. 2004. p.135.
10. 鍾離權. 靈寶筆法.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北京. 2008. p.163, 164, 165.
11. 張果. 太上九要心印妙經. 中華道藏十九冊. 華夏出版社. 北京. 2004. p.1.
12.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學苑出版社. 北京. 2004. p.68, 124, 160, 279.
13.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學苑出版社. 北京. 2002. p.504.
14. 王履. 醫經溯洄集. 上海浦江教育出版社. 上海. 2012. p.51.
15.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36, 188.
16.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 人民衛生出版

- 社. 北京. 1991. p.126, 492.
17.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學苑出版社. 北京. 2003. p.102.
 18. 沈金鰲. 雜病源流犀燭.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138.
 19. 孫一奎. 赤水玄珠. 孫一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351.
 20. 趙獻可. 醫貫.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p.828.
 21. 林佩琴. 類證治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5. p.110.
 22. 張琦. 素問釋義.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98. p.30.
 23. 唐宗海. 血證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5. p.3, 14.
 24. 周學海. 讀醫隨筆. 周學海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255.
 25. 陳修園. 醫學實在易. 陳修園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8. p.546.
 26. 劉河間.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2. p.120.
 27.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2. p.29.
 28.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31.
 29. 張景岳. 類經附翼. 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796, 797.
 30. 成無己. 傷寒明理論.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p.131.
 31. 龔廷賢. 壽世保元.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2. p.8.

